‘방망이 부활’ 호랑이 거칠게 없다

김상현 빈자리 최희섭·박기남·김상훈 홈런포 가세
마운드도 안정… 넥센·한화 상대 선두권 도약 기대

본성 되찾은 호랑이들이 최하위 팀들을 상대로 승리 사냥에 나선다.

KIA 타이거즈가 방망이의 부활 속에 지난주 5승을 챙기며 본격적인 순위 싸움에 뛰어들었다.

타선의 고른 활약과 6선발 체제의 완성으로 힘을 얻은 KIA는 이번주 넥센과의 안방 대결에 이어 주말 대전을 찾아 한화와의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5월 시작과 함께 KIA는 전혀 다른 팀으로 돌변했다.

답답한 침묵으로 일관하던 타자들은 결정적인 한방을 앞세워 팀 5연승을 주도 했다. 득점권 상황에서의 집중력과 함께 장타력이 돋보이는 한 주였다.

KIA는 지난주 6경기에서 7개의 홈런을 비롯해 2루타 6개, 3루타 1개를 기록하며 숨겨놓았던 장타능력을 유감없이 과시했다.

3개의 홈런포를 터트린 최희섭을 선두로 김상훈은 마수걸이 홈런으로 팀의 3연승을 결정지은데 이어 만루홈런포까지 기록하며 5연승을 채웠다. 김상현의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주고 있는 박기남도 4년 만에 손맛을 봤다.

‘아기 호랑이’ 안치홍은 홈런포를 가동하지는 못했지만 2개의 2루타와 3루타도 하나 기록하면서 장타능력을 선보였다.

한층 무게를 더한 타선의 전면에는 이용규의 활약이 있었다. 장타를 의식하며 타격폼을 수정했던 이용규는 4월 극심한 침체를 보낸 후 개인보다는 팀을 위한 선택을 했다. ‘어게인 2008년’을 외치며 전면 수정에 나선 이용규는 6경기에서 11개의 안타를 기록하는 등 맹타를 휘두르며 0.560의 출루율로 테이블 세터 본연의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마운드의 짜임새도 돋보였다. 윤석민-전태현-서재응-양현종-로페즈로 이어진 선발진은 29이닝을 책임지며 5실점으로 상대 타선을 막고 1.55의 방어율을 기록했다. 불펜진들도 한층 안정된 모습으로 승리를 지켜주며 로페즈를 제외한 4명의 선발진이 승을 챙겼다.

흔들리던 손영민은 지난주 3경기에 등판해 5와 3분이 1이닝 동안 단 하나의 안타도 내주지 않으면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

새 용병 로만 콜론이 연착륙에 성공하면서 6선발 체제도 완성됐다. 선발진 중심의 마운드 운영이 가능하면서 과부하에 걸렸던 불펜진들의 부담이 한결 줄어들 전망이다.

전력 재정비에 성공한 KIA의 이번주 상대는 하위권의 두 팀 넥센과 한화다. 상대적으로는 KIA의 전력과 상승세가 우위에 있지만 방심할 수 없는 상대들이다.

KIA는 넥센만 만나면 어렵게 경기를 풀어가곤 했다. 올 시즌 전적도 1승2패로 넥센에게 뒤지고 있다. 끈기의 넥센을 상대로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유지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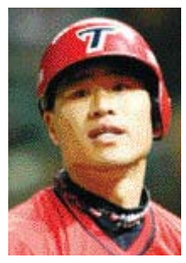
대전에서는 타선에서의 기선 제압이 중요하다. 5월과 함께 되살아난 타력이 어느 정도 상승세를 유지해주느냐에 따라 주말의 승패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중간순위 (10일 현재)

순위	구단	승	패	무	승률	연속
1	SK	25	9	0	0.735	1패
2	두산	20	12	1	0.606	1승
3	삼성	20	15	0	0.571	1승
4	KIA	17	17	0	0.500	1패
5	롯데	16	20	0	0.444	1패
6	LG	14	17	1	0.438	1승
7	넥센	14	21	0	0.400	1승
8	한화	10	25	0	0.286	1패

김상현 무릎 수술
내달 중순께 복귀



KIA타이거즈 ‘해결사’ 김상현이 수술대에 오른다.

무릎 통증으로 지난달 25일 엔트리에서 말소된 김상현은 11일 서울 백병원에서 왼쪽 무릎 연골 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는다.

지난 6일 김진섭 정형외과에서 무릎 연골 부분 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던 김상현은 10일 백병원에서의 최종 정밀검진 결과 같은 진단이 나오면서 수술을 결정했다.

김상현은 수술 후 3일 정도 입원해 기초 재활 및 수술 경과를 지켜보고 퇴원을 할 예정이다. 이후 광주에서 약 6주 정도 재활치료 및 재활훈련을 거친 뒤 6월 중순께 그라운드에 복귀할 전망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에 대비한 소집훈련이 시작된 10일 오후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서 구자철과 차두리가 서로 볼다툼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허정무호 최종 엔트리 무한 경쟁

어제 소집… 파주NFC서 본격 담금질

“23명 최종엔트리 안에도 들겠다.”

축구대표팀이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본선 준비를 위해 마지막 담금질에 들어갔다.

남아공 월드컵 예비엔트리 30명 안에 든 예비 태극전사들은 마지막 소집훈련을 위해 10일 낮 파주NFC(대표팀트레이닝센터)에 속속 모여들었다.

일단 예비 명단에 이름을 올렸지만, 남아공 월드컵에 참가하려면 최종엔트리 23명 안에 포함돼야 해 선수들은 긴장을 늦출 수 없다. 태극전사들은 아직 끝이 아니라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경쟁에 대한 자신감만큼은 감추지 않았다.

최근 소속팀에서 계속된 결장으로 경기력에 대한 우려를 낳은 미드필더 기성용(셀틱)은 “잘 쉬다 왔다”며 멋쩍은 웃음을 지어 보이고서 “나름대로 잘 준비해 왔다. 컨디션이 아직 완벽하지는 않지만 조금만 더 준비하면 문제없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월드컵은 이번이 처음이라 설렌다. 큰 사명감으로 나서야 한다.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이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으로 생각한다. 개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싶다”라고 각오를 드러냈다.

2006 독일 대회에 이어 두 번째 월드컵 출전을 노리는 수비수 김동진(울산)은 “힘든 시간을 통해 마음고생이 많았다. 꿈이었던 예비 엔트리에 들어 기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23명 안에 들어 다시 월드컵이라는 축제에 참여하고 싶다”는 바람을 전했다.

골키퍼 김영광(울산)도 “월드컵 출전은 영광이다. 단단히 마음먹었다. 경기는 11명이 하지만 23명 모두 준비하는 것이다. 기회가 오면 팀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선의의 경쟁을 다짐했다.

해외파인 차두리(프라이부르크)와 오른쪽 풀백 자리를 놓고 기량을 겨뤄야 할 오범석(울산)은 “두리 형이 워낙 잘하고 경험이 많아 부담스럽다. 하지만 피할 수 없으니 좀 더 즐거운 마음으로 경쟁하겠다”고 말했다.

대표팀 내 새 바람을 불러 일으킨 막둥이들도 패기 넘친 모습으로 파주NFC에 발을 디뎠다.

공격수 이승렬(서울)은 “30명 안에 든 것도 기쁘다. 살아남으면 더 큰 영광일 것이다. 그 기회를 꼭 잡겠다”며 쟁쟁한 선배들과 싸움에서 호락호락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연합뉴스

한-일 대표 24일 평가전

한국과 일본의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이 오는 24일 오후 7시20분으로 정해졌다.

대한축구협회는 10일 “일본 사이타마에서 열리는 일본과 경기 시간을 비롯해 30일 벨로루시, 6월3일 스페인과 평가전의 경기 시간과 장소가 확정됐다.”라고 발표했다.

아시아 모터스포츠 페스티벌
영암에서 8월27일 개막

아시아 최대의 스피드 축제인 아시안 스피드 페스티벌(AFOS)이 오는 8월 27~29일 영암 F1경주장에서 열린다.

F1대회조직위원회와 대회 운영사인 카보(KAVO)는 10일 국제자동차연맹(FIA)이 공인한 아시아지역 종합 모터스포츠대회인 ‘AFOS(Asian Festival Of Speed)’ 유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AFOS는 아시안 투어링카 시리즈, 포뮬러BMW 퍼시픽, GT3 아시아, GT4 아시아컵, 포르쉐 카레라컵 등 여러 개의 개별 대회가 한자리에 모여 열린다.

F1조직위와 KAVO는 AFOS가 100여대의 이상의 경주차와 수 천명의 인력이 움직이는 대규모 행사라는 점에서 F1 코리아 그랑프리 개최 이전 경주장의 시설과 운영 능력을 사전점검하는 효과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AVO 관계자는 “영암서킷에 AFOS와 F1, F3 등 올해만 국제자동차연맹 공인 국제대회를 3개나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국에서 대회를 열기로 한 만큼 국내 최고의 모터스포츠 전문 기업으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박지성 최종전서 4호골… 첼시 리그우승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부자구단’ 첼시(승점 86)가 라이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승점 85)의 사상 첫 4연패 시도를 잠재우고 4년 만에 정규리그 정상에 올랐다.

첼시는 10일(한국시각) 새벽 영국 런던 스탬퍼드 브리지에서 끝난 2009~2010 프리미어리그 38라운드 최종전에서 위건 애슬레틱을 상대로 해트트릭을 작성한 디디에 드로그바의 활약 속에 두 골을 넣은 니콜라 아넬카와 프랭크 램퍼드·살로몬 칼루·애슐리 콜의 릴레이골이 작렬하며 8-0 대승을 거뒀다.

이날 승리로 첼시는 27승5무6패(승점 86)를 기록, 이날 스토크시티를 4-0으로 꺾은 맨유(승점 85)를 승점 1점차로 제치고 2005~2006시즌 이후 무려 4년 만에 통산 4번째 정규리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첼시는 이날 6골을 만들면서 이번 시즌 103골을 넣어 역대 한 시즌 최다골의 신기록도 작성했다. 또 첼시의 시즌 100호골의 주인공이 된 드로그바는 이날 정규리그 27호·28호·29호골을 연속으로 넣으면서 웨인 루니(맨유·26골)를 누르고 3년 만에 득점왕에 올랐다. 반면 정규리그 4연패 도전에 나선 맨유는 스토크시티를 맞아 대런 플레처와 라이언 긱스·박지성의 연속골과 상대 자책골을 묶어 4-0으로 이겼지만 첼시의 대승으로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특히 박지성은 지난 3월11일 AC 밀란과 16강 2차전 이후 두 달여 만의 득점포로 시즌 4호이자 정규리그 3호골을 기록하며 기분 좋게 한 시즌을 마무리했다. /연합뉴스

임창용 일시 귀국
외할머니 병세 위독

일본프로야구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수호신 임창용(34)이 외할머니 병세가 위독해 10일 일시 귀국했다.

임창용의 에이전트인 박유현씨는 “임창용이 이날 오후 귀국했고 병원이 있는 광주에 내려왔다. 11일 외할머니와 병실에서 함께 하루를 보낸 뒤 12일 아침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창용의 외할머니는 고령으로 최근 병세가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